

특별기획 시리즈
제 163 회

금성치과의원 원장

- 김 규 문 -

感染

세균이 병의 원인이며 전염을 일으키는 유전인자라고 하는 확고한 지식이 얻어진 것은 19세기 일이었지만 병을 일으키는 작은 생물이 있다고 하는 사고 방식은 몇천년 전부터 있었다.

기원전 1세기 “바로,,는 습지가 위험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종류의 소동물이 거기서 번식하고 공기로 운반되어 입으로 체내에 들어가 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증세에도 나환자를 멀리하고, 페스트 발생 지역을 피해서 중환자를 격리한 것은, 모든 병이 전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페스트나 감염성 질환의 본체나 원인은 19세기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중에 사본의 삽화는 감염된 사람들의 의류를 소각하면 전염을 막을 것이라고 알려진 그림이다.

오스포드 (보드레언 도서관 소장)

